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기록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행동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아버이 주일 메시지**



## 주여,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잠3:1)**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다. 부모님은 하나님 사랑의 대행자로 내게 주신 축복이다.

세상 사람들이 내 부모를 향해 혹 천대한다 해도 내게는 돌도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다.

그분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분이시고 오늘의 내가 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모님의 교훈을 저버리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의 교훈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들께 위탁하신 임무이기 때문이고,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분의 교훈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자신에게 복된 길이 되기 때문이다. 모세, 사무엘, 디모데 같은 성경 속의 출중한 인물들은 모두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산 사람들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함께 고임을 받게 될 것이며 허락받은 축복을 대대로 계대하게 될 것이다.

부모님의 노후를 저버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가난해서 신음하는 소리, 억울해서 울부짖는 소리, 슬퍼하며 탄식하는 소리가 부모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드려야 한다.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효도는 윤리와 종교의 기본이다.

주여, 부모의 축복이 동결되는 곳에는 행복의 꽃도 필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원로목사 이종윤



# 예배 방해죄 무혐의 처분

지난 1월 15일 사태에 대해 박노철 목사 외 5명(박두호, 최양진, 이동만, 김금준, 최차순)은 사무국 안재선 외 6명(유태서, 이병천, 정경자, 이승준, 윤요섭, 이남성)을 예배 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해자와 피의자들을 수사한 결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검찰이 수사한 바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의자들로 인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일 새벽에 피해자 박노철 목사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열쇠공을 불러 불법으로 본당에 침입하여 온종일 대치상황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어느 측에서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으며, 또 서울교회 당회 결정에 따라 박노철목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당일 서울교회 주보에도 설교는 김철홍목사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의자 안재선은 서울교회 사무국 직원으로 기계 및 전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직무수행을 위해 밤 10시에 교회에 들어가 전기를 차단한 것으로, 불법으로 침입하여 무단으로 전기를 차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피의자 유태서와 윤요섭은 서울교회 박노철목사가 안식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본당을 침입하고 단상을 점거하여 반대측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져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소동하였고 교회 소식을

을 전하기 위해 안식년 규정에 대해 영상물을 방영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예배를 방해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피의자 이남성은 당일 김철홍 목사가 설교를 해야 하는데, 박노철 목사가 설교를 하려고 단상을 점거하고 있어 단상에서 내려오라고 하였을 뿐 폭언과 사대질을 하지 않았다고 할 뿐 아니라 당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피의자 이승준은 박노철목사가 새벽에 불법으로 본당에 침입하여 점거하였기 때문에 대화로 풀자고 설득을 하였으며 폭언과 사대질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당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피의자 정경자는 고의적으로 박노철 목사에게 물을 뿌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밀리면서 물이 쏟아 졌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피의자 이병천은 모포만 잡고 있었을 뿐 출입문을 파손한 사실도 없고 박노철목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의 견임.

# 초대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소망부(부장 : 손태현 집사)가 스데반회(회장 : 송인수 집사)와 제1, 2권사회(회장 : 장호림 권사, 김찬진 권사) 후원을 받아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교회 어르신들께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소망부와 은빛찬양대, 살롬권사회원과 사라여전도회 및 아브라함 남선교회와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이 듬뿍 담긴 선물도 준비하였습니다

- 일 시 : 5월 16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801호 (만나홀)

소망부 교사 일동



## 섬김위원 일부조정

교회는 지난 5월 10일 (수) 정기당회에서 일부 섬김위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 선교위원장 : (신용식 장로)를 송인권 장로로
- 구제위원장 : (박두호 장로)를 안인호 장로로
- 상조부장 : 당분간 각 교구별 교구장 체제로

## 교육부서 지도목사 전도사 임명

교회는 지난 5월 10일 (수) 정기당회에서 중·고등부 교육목사로 윤누가 목사를, 유초등부 교육전도사로 최근영 전도사를 임명하였다.

## 한국기독교학술원 제51회 학술공개세미나

5월 15일(월)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한국기독교학술원은 제51회 학술공개세미나를 “종교개혁의 국제적 영향과 계속되는 개혁운동과의 연관성”이라는 대 주제하에 오는 5월15일(월) 오후 2시부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첫번째 강의는 “종교개혁자들의 논지 : Sola's 에 대한 이 시대의 이해”라는 제하로 이종운 원로목사가 맡는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 호산나대학 - (주)프로에스컴, 프로투게더

##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MOU체결

지난 5월 11일, 호산나대학에서 호산나대학(이하 '대학')과 (주)프로에스컴(이하 '프로에스컴'), 프로투게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식은 국내 경비업계 대기업인 프로에스컴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프로투게더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호산나대학 내 졸업생을 채용하여 운영하는데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 관련 주요 내용은 △발달



장애인 채용 시 호산나대학 추천 인력 우선 고용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직무개발 △프로투게더 운영 관련 협력 △발달장애인 현장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지도 등이다.

프로에스컴 양승철 사장은 “호산나대학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고용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버이주일 부모초청예배

자녀와 함께 드리는 중 · 고등부 예배에 부모님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7년 5월 14일(주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교회 501호(중 · 고등부실)

- 09:00 ~ 09:45 자녀와 함께 드리는 중 · 고등부 예배
- 09:45 ~ 10:00 찬양 및 축복의 시간
- 10:00 ~ 10:10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도회
- 10:10 ~ 10:30 교역자 및 교사 소개, 특송
- 10:30 ~ 담임선생님과 만남

\* 부탁의 말씀: 예배는 정확히 오전9시에 시작합니다. 10분전에 미리 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고등부 부장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중등부 부장 김영희 집사 (010-8743-7514)



사랑하는 아버지께

박유진 성도 (청년부)

# 그리운 마음 담아



사랑하는 아빠!  
아빠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장손인 오빠보다 딸인 저만 유난스럽게 예뻐해주신 딸바보 아빠. 그런 아빠의 사랑으로 인해 어엿하게 잘 성장한 딸, 부족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깨끗하게 잘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떠나시기 전 딸내미 결혼식장에 같이 들어가야 하니 금방 일어날거라고, 걱정말라고, 힘없이 그리고 여느때처럼 장난기 가득하게 애써 웃으시며 이야기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다더라면 더 아빠 손 붙잡고, 더 눈 마주치고, 더 열심히 이야기 나눴어야 하는데.. 그동안 딸로서 요구할 줄만, 받을 줄만 알았지 정작 드린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과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만 생각나 문득문득 죄송한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가득하여 눈물이 눈에 한가득 차오르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빠였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며 바르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늘 말씀해주셨던 아빠.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아빠를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으로 보였을 때조차 주님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드리기를 미뤘던 못한 딸을 용서해주세요. 생각하면 가슴을 탁탁 칠 수 밖에 없는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지만 시간을 그 때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먼저 가신 아빠를 위해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매일을 보냅니다.

아빠를 보내드리고 맞는 첫 어버이 주일이네요.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 수록 잊혀지기는 커녕 오히려 잊고 지냈던 작고 작은 추억까지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 소중한 시간들 속의 아빠와 아빠의 그 사랑을 잘 간직하며 다시 만나는 그 때까지 씩씩하고 건강하게, 엄마께 더욱 효도하며 잘 살게요! 고맙고 사랑해요, 아빠! ♥



◀ 서울교회의 기둥이신 이승선 원로장로님, 박순봉권사님 내외분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 지난 목요일 수술을 마친 유하연어린이(왼쪽에서 두 번째 서있는 어린이)의 빠른 회복과 이전 보다 더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교회는

#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



나의 사랑 서울교회

서울교회는 반드시 바로 서야 합니다(2)



김형택 집사 (12교구)

목회자를 무조건 신봉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촉발합니다.

이종윤목사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 가운데 하나님 편에만 서서 숨 가쁘게 달려온 서울교회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시점에서 2대 목사님의 은혜 구원의 설교문 그것이 독초인 줄도 모르고 성도들은 어쩌면 인간 존엄성에 안위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천국화를 외치며 천국시민의 양성의 열매 꿈꾸는 서울교회가 예배시간의 말씀이 식기도 전에 엘리베이터를 앞 다투듯 타는 지난날의 현실은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늘 승강기를 만나



2008년 서해안 유조선 원유 유출 사고때 태안에서 봉사하셨던 김형택 집사님

하며 "더 탈수록 더더지고, 정지 시간을 줄이고 속히 가야 소통이 된다" 카드를 들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3개의 승강기가 혼잡 시간에 2배 이상 빨라지는 놀라운 현상에 나 자신도 놀라고 노 권사님들도 많이 놀랐는데 갑자기 한 대의 승강기에 '노인 전용'이라는 허랑한 팻말이 붙여져서 저는 이 일로 담임목사에게 면담 신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안식년 제도를 거부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지금까지 양들의 편에 서서 애뜻하게 살피는 것 같았던 담임목사의 외형과는 달리 헌신적 목회자가 아닌 자

신의 취향적 목회, 가족애, 외부 교제, 설교문 묘책, 성경 왜곡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며 대치동에 부지를 사고 IMF 한파에도 굴하지 않고 자력 봉사로 공사비를 줄이며 성도들의 헌신으로 본당 3500석의 예배당을 준공하고 아가페타운을 건립하며 해외선교사 파송 100명을 목전에 두었던 지난 20년! 교회를 끊임없이 갱신하고자 장로, 목사 재신임하는 안식년제를 실행하고 북한난민을 구원을 위한 UN 청원운동 등 기적같은 사역을 이룬 서울교회는 반드시 바로 서야 합니다. 6.25 잿더미에서 세계 10대 강국을 이룬 대한민국이 성공을 시샘하는 악한 영에 휘둘리어 파멸의 길로 들어가 허덕일까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모두 절반의 국민이 절반의 십일조로 북한 백성을 도와 하나 되는 통일 조국을 여는 발원지로 서울교회가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서울교회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4일(주) 서울교회 주일예배 설교한다. 15일(월) 한국기독교학술원 51회 학술공개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한다. 16일(화) 어버이날 서울교회 잔치에서 설교한다. 19일(금) 서울여대56주년개교기념식 및 이흥순장로(한국기독교학술원 이사장) 명예경영학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축사한다.

■ 득녀 : 12교구 오세정 성도, 제노핏 성도 (오광환 장로 이안순권사 장녀 가정)

■ 이번 주일 식사 제공 : 하인선 장로·남태순 권사가정 (하영인 집사·이경진 집사/하혜심 집사·김관섭 집사/하상영 집사) - 범사에 감사하며

■ 떡 제공 : 한승열 집사, 고연우 집사 가정 고 김인순 권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시대를 보는 눈' 미래한국TV 개국

미래한국TV가 개국했다. 시사전문매체인 미래한국은 지난 5월2일 논동동 사옥 스튜디오에서 임원진과 편집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국식을 갖고 첫 방송을 녹화 송출했다.



최근 언론의 보도가 객관성과 정확성을 잃고 있고 국민들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혼란에 빠져있는 가운데 미래한국TV는 정확한 뉴스해설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최근 미디어 환경은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고 SNS를 통한 뉴스의 전달 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래한국은 기존의 격주간 매거진과 온라인 홈페이지 콘텐츠를 영상뉴스 형식으로 연계 제작하게 됨으로써 보다 많은 독자들과 시청자들을 다양한 경로와 형식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됐다.

미래한국TV는 기자들과 편집위원 등 미래한국의 고정 필진과 각계 전문가들이 진행자 및 출연자

로도 직접 참여해 제작하게 된다. 최근 늘고 있는 이른바 '1인 방송'들과는 달리 지난 15년간 검증된 취재능력과 수준높은 저널리즘을 갖춘 언론사가 만드는 유일한 SNS 방송으로

2002년 6월 창간한 미래한국(창간 발행인 김상철 전 서울시장)은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믿는 기독교 세계관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보수주의적 시각에서 시사문제를 해설하고 정책대안을 제기해왔다. 자유와 복음을 기반으로 한 통일과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으며 경제역사 문화 분야에서 고급 교양강좌와 동성애와 교육문제 등 사회이슈들에 집중해 왔다.

미래한국TV는 유튜브 내 채널과 미래한국 홈페이지를 통해 접할 수 있으며 현재는 기존 미래한국에 개재됐던 인터뷰와 시범방송 콘텐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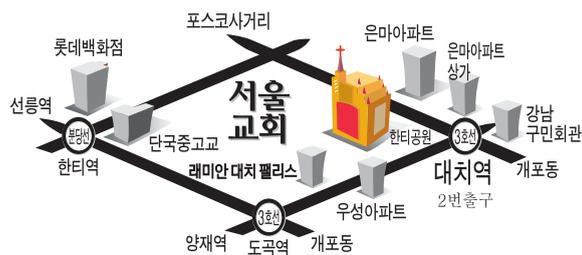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교회의 어른들을 영적인 어버이로 섬기며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2.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 같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3.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전쟁의 위협 사라지고 복음화 된 통일 조국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